

※ 러시아 역사의 단계와 특징

I. 키예프 루시 시대(862~1240); 동슬라브(러시아) 역사의 시작

- 키예프(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 공후국(公侯國)들의 연합체
- 서유럽의 중세 봉건주의와 형식상으론 꽤 유사
- 각 공후들이 상당정도 자치와 독립을 누리나, 문화/정서적으론 결속이 높았다.
-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도시에 따라선(예; 노브고로드)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적 전통을 누렸음. cf) 민회(Веche)
- 13세기 초, 서유럽 정벌에 나선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이끄는 몽고군에 의해 멸망
- 서유럽을 향한 몽고-타타르의 정벌은 러시아에서 정지. 알 수 없는 두려운 파괴적 동양의 힘으로부터 서유럽 문명을 막아낸 ‘방파제’와 같은 구실을 러시아가 했다고 말하기도.

II. 몽고 지배기(1240~1480); 수난 극복기

- 초기에는 가혹한 지배와 무거운 세금 등 인적, 물적 약탈이 심했음
- 이후 정해진 공물을 바치면 일정정도 자치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그 통치의 개입정도는 약해져갔음. 한편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 몽고-타타르의 간섭은 심하지 않았다.
- 이때 몽고-타타르를 대신해 러시아 땅의 대리통치자로 초기의 블라디미르, 이내 모스크바의 공후가 중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동슬라브의 중심은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그 축이 옮겨가기 시작했다.¹⁾
- 1380년 돈강 근처 콜리코보 벌판에서의 전투를 모스크바 공후가 중심이 된 러시아 연합군이 승리로 이끈 후, 몽고에 대한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
- 한편, 이 시기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물리적 생활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당, 병원, 학교, 탈곡장, 집회의 장소, 사교장, 축제의 마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원이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대표적; 세르게이 대수도원)
- 러시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타타르 지배기 동안 서방과 단절된 채 철저한 정치적, 문화적 고립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동방정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가톨릭이 아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타타르 지배동안 역시 로마가톨릭은 물론이요 그리스(즉, 비잔틴 제국)와도 멀어졌던 러시아에는 이때부터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와 문화적 토양이 공고하면서도 주변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1)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러시아를 포함한 동슬라브 민족의 중심인 키예프와 모스크바는 분리되어 오늘날 러시아인들의 중심도시로 모스크바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키예프는 옆 나라인 폴란드의 강한 문화적 영향아래 러시아와는 다른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키예프가 다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러시아와 합쳐진 것은 1667년에 이르러서이다. 즉, 1240년 이후 400년이 넘도록 키예프와 모스크바는 다른 역사적 발전 경로를 걸어간 셈이다.

III. 모스크바 (대)공국시기(1480~1601); 모든 길은 모스크바로!

- 오랜 기간 외부의 적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에, 외적에 대항하기 위해 내부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스크바가 사실상 제국의 중심이 되어 오늘날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확립해나간 시기
- 법전 편찬, 농노제 확립, 신분질서 구축, 통치권 세습의 원칙 확립 등 이른바 국가로서의 골간을 확립
- 팽창하는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제주의 황제의 독재체제를 마련
- 이러한 통치체제는 러시아인 특유의 공동체사상과 맞물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질 때까지 러시아를 떠받들었던 사회적 분위기로 확립되기 시작
- 타타르로부터의 '해방'의 기쁨에서 비롯한 종교적, 문화적 부흥을 이룸(안드레이 루블료프의 성상화[이콘], 모스크바의 성바실리 사원)

➢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

- 15세기 중후반, 비잔틴 제국의 멸망(1453), 몽고-타타르의 지배 종식(1480) 등이 맞물리는 가운데, 러시아인들 사이에는 자신들이 앞으로 정교세계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를 이끌어 나갈 중심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이 표현되었다.
- 제1로마 멸망, 제2로마(콘스탄티노플) 멸망, 제3로마인 모스크바가 영원, 더 이상의 로마는 없다~!!
- 모스크바가 중심이 되어 통합의 기운을 이끌어나가던 모스크바 공국 시기,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했으며, 나아가 러시아적 선민사상과 메시아니즘의 표현으로도 수용
- 이후 러시아가 수난을 겪을 때에는 버팀목이 되었으나 팽창을 시도할 때는 정치적, 민족적 지렛대가 되었다.

IV. 17세기 '전환기'(1613~1703): 중세의 가을, 근대의 여명

- 이반 4세의 죽음(1584)과 함께 모스크바 대공국은 후사로 혼란에 빠짐. 중세의 가을
- 이반 4세의 계승자인 표도르가 죽은 뒤, 보리스 고두노프가 제위에 오르나 극심한 '혼란기'Смута(1601~1613)에 빠짐. 폴란드인들의 침입, 가짜 드미트리 사건 등을 겪은 뒤, 이후 1613년 미하일 로마노프가 제위에 오르며, 이른바 로마노프 왕조가 열림.
- 새로운 왕조와 함께 온통 혼란기로만 보이는 17세기지만, 이 시대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중세 동슬라브를 외래의 문물과 보다 본격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고, 일반 민중들의 의식이 중세의 신적 지각에서 깨어나 소위 인간적 '개성'личность을 인식해가던 시기였으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근대(近代)로의 확연한 이행을 겪은 시기였다.
- 중세의 코트머리로 치부하기 보단 18세기부터의 근대를 이끈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 역사 발전의 유기적 단계와 정합적 발전을 보다 타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구교도 분리파 운동; 러시아관 종교개혁

- 17세기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러시아관 종교개혁
- 서구의 종교개혁적 움직임과는 좀 다른데 이는, i) 위로부터의 개혁 시도, ii) 전통의 고수, 유지라는 점에서 그렇다.

- 위로부터의 종교적 전파에 대한 집단적이고 과격한 항거에서 러시아인 특유의 극단성, 폭력성, 허무함 등이 잘 드러난다.
- ‘종교’ 자체를 다시 보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 끝에 드디어, 러시아는 중세의 신 중심에서 벗어나 근대의 ‘이성’ 중심으로 옮겨오게 된다.

V. 표트르 대제, 18세기(1703~1796) ; 유럽으로 난 창, ‘학습’의 시대

- 1703년, 핀란드 만의 습지에 제국의 수도 건설을 명령하면서 러시아는 전통적 모스크바에서 근대적 페테르부르그로 나아가게 된다.
- 표트르 1세라는 황제(1672~1696-1725)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러시아를 강제적으로 서구화시켜 나가게 된다.
- 서유럽에서도 절대주의와 전제주의 황제가 등극하던 시기, 러시아 역시 전제주의 황제의 통치 아래 제국의 영토 확장과 식민지 개척(시베리아), 내정 확립에 힘쓰게 된다.
- 무엇보다, 신이 아닌 ‘국가’에 봉사하는 개념이 정착되게 된다.
- 미하일 바실리예비치 로모노소프(М. В. Ломоносов); 18세기 러시아의 백과사전적 인물 (러시아판 아리스토텔레스)이자 하나의 ‘현상’.
- 종합 지식인인 자신의 삶의 체현으로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설립자(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 신분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합리적, 이성적 기준에 의해 국가경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의식은 어쩌면 그 당시 러시아가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학습’이었을 것이다.
- 한편, 러시아 제국 역시 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시베리아라는 ‘식민지’를 경영하게 된다. 여타 제국이 ‘해외’ 식민지를 가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독특’한 경우이다.

VI. 19세기 러시아 제정시기(1796~1917) ; 러시아에 영광있으라!

- 본격적인 러시아 제정의 확립, ‘전성기’
- 카프카즈,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극동 등 이질적 지역들까지 제국에 편입
- 러시아의 외연(外延)이 넓어질 뿐 아니라 내연(內緣)까지 심화
- 낭만주의, 민족주의, 리얼리즘 등 사회사상과 문예 및 예술사조의 명멸
- 러시아 민족의 최전성기

VII. 소비에트 시기(1917~1990); 인류 최초이자 최대의 역사적 실험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라는 인류 최초이자 최대규모, 최장기간의 역사적 실험
- 2차 대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사회주의 체제를 혁명 이후 붕괴된 전제주의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 노력, 그 이후는 예기치 않은 전쟁 후 새로 재편된 역사 질서(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에 대응하려 노력
- 자생적 문제점과 생존을 위한 자기 수정의 노력 사이에서 함몰, 소비에트 해체
- 그 역사적 실험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해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VIII. 현대 러시아 시기(1990~);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야 하나...?

- 21세기, 러시아 민족의 진로에 대한 역사적 고민
- 쉬또 켈라찌 [Что делать]? (무엇을 할 것인가?)
- 러시아식 민주주의(Демократия по-русск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우리는 무엇을 노려야 할 것인가?

➤ 러시아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와 상통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조화와 중용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극단성과 비타협성, 허무주의에 대한 동경, 양극단으로의 급진적인 주기적 변화 등은 러시아 역사와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이다.